

韓國首都 研究에 대한 方法論的 論議

任 德 淳*

《目 次》	
1. 序 論	(1) 비가지 觀點과 관련된 對象들
2. 首都에 대한 觀點	(2) 기타 對象들
3. 研究對象과 方法	4. 結 論

1. 序 論

首都는 一國 最高의 政治的 權威(political authority)가 소재하는 都市로서¹⁾, 여기서 계획되어 짜여진 政策은 國內 全域에 걸쳐 집행되기 때문에 이러 政治地域들 中에서도 影響力과 重要性이 가장 크다. 그리고 國家를 主導해가야하는 政治都市인 까닭에, 首都는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側面들, 가령 國家理念 내지 政治的 意志라든가, 國家的 發展課題, 그리고 이에 관련된 機能등 獨特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이외에 수도 市域內에 사는 다수의 주민들을 위하여, 보통의 도시들에서 수행되고 있는 것들과 같은 기능들도 행해야 한다.

이러한 理由들 때문에, 首都는 政治地理學이나 都市地理學, 또는 都市經濟地理學에서 한결 같이 연구대상으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 여기서는 政治地理의 측면에서 한국 수도 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수도를 연구하는데 쓰일 수 있는 觀點은, 그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

다. 여기서는 그 觀點들을 찾아내어 論議를 따고, 또한 對象 및 方法도 탐색하여 검토해 봄으로써 政治地理學에서의 首都研究, 특히 韓國首都 研究에 몇가지 도움을 제공코자 한다.

觀點·對象·方法의 探究와 이들에 대한 論理的 檢討는 아직 개척되거나 개발되지 아니한 多數의 구체적인 연구대상을 세상에 드러내놓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首都에 대한 觀點

觀點은 새로운 연구대상을 찾아내는 외에, 既存對象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게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韓國首都를 바라보는 정치지리학적 觀點으로는 歷史的(historical) 觀點, 시스템(system)的 觀點, 機能的(functional) 觀點, 空間的(spatial) 觀點등 4가지 觀點이 있을 수 있다.

歷史的 觀點에서는 首都를 “時間속의 實體”(entity in time)로 認識한다. 首都發生(起源)에서 부터 現在, 未來의 수도 모습까지를 각기 斷絶된

* 忠北大學校 師範大學 助教授

1) R. Muir, 1975, *Mordern Political Geography*, London: Macmillan Press, p. 30.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의 連續된 線上에서 바라 본다.²⁾ 즉 과거—현재—미래의 連續體로 首都를 인식한다. 이러한 觀點하에서는 과거란 現在의 母體이며, 동시에 原因이 되고, 현재는 過去의 所産이며, 동시에 結果이다. 그리고 과거는 그 보다 더 앞선 과거의 所産이며 結果인 것이다.

수도는 이러한 歷史的 前後關係나 역사적 인과관계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때로는 발전·용성(機能, 構造, 空間上)하고 때로는 쇠퇴하기도 한다. 이 點을 중요시하여 具體化한 접근방법이 歷史的 方法이다. 그런데 역사적 方法에는 發生에서 現在까지를 어떤 특별한 기간 설정없이 주욱 연속적으로 접근하는 通史的 方法(diachronic approach)과, 적절한 분석 期間들을 設定하여 접근하는 期間的 方法³⁾(periodic approach), 그리고 特定契機의 時點들을 의미있는 時間斷面들로 삼아, 각 단면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나중에는 斷面간의 比較도 하여가는 이른바 時間斷面的 方法⁴⁾(cross-sectional approach)등이 포함된다.

다음에는 시스템적 觀點과 關係해서 논해보기로 한다. 이 觀點을 논의하려면 우선 시스템이란 무엇인가가 明確되어야 한다. 시스템이란 相互作用하는 部分들로 構成된 機能體(functional set)로서, 부단히 環境으로부터 影響이나 要求를 받아가는 가운데 존속·발전을 위한 適應을 통해 自體構造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產出(output)을 내어놓는 것이다.⁵⁾

한 나라의 首都도 相互作用의인 여러 부분들로 짜여져 있는 하나의 機能體이며, 國內外 여러 環境的 條件과 이로부터의 요구에 적응하여

가면서 그의 構造(機能的, 空間的)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스스로 그 구조 변화를 모색하여, 그 결과 변화된 구조는 새로운 產出(특히 기능)을 내어놓고 있으므로, 이러한 수도를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수도는 곧 시스템의 기본 요건인 環境, 環境으로부터의 影響이나 요구, 구조변화, 산출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적 觀點은 특히 首都의 構造—機能 變化와 이와 關係되어 일어나는 人口 및 수도 空間規模의 변화를 國內外 環境변화와 關係해서 과거—현재—미래 順으로 살피고 說明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機能的 觀點에서 수도를 바라보려면, 研究者는 우선 動的인 首都機能을 무엇에 근거해서 포착해낼 것인가에 注意하게 된다. 이 경우 아마도 가장 적절한 일은 다른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기능을 수도에서 탐색하는 것일 것이다. 이때 수도에는 국가의 存續·發展을 위해서 일하는 最高 政治權力者와 그가 이끌어가는 中央政府 各部處가 있어서, 이것들이 전국을 統治해 간다는 점에 着眼하면 좋을 것이다.

수도의 固有機能인 전국 統治機能에는 Spate⁶⁾가 제시한 것처럼 統御기능(head function), 結束기능(keystone function), 連結기능(link function), 그리고 邊境維持 기능(frontier-organizer function)이 있다.

통어기능이란 마치 人體에 있어서 두뇌가 그의 통제·조정기능을 통하여 全身을 管理·주도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國土라는 신체’의 두뇌에 해당하는 首都가 國土(국가)를 組織的으로 管理·통제하면서 主導해가는 일을 말한

2) P. E. James, (ed.) 1959, *New View Points in Geography*. Washington, D. C.: NCSS, pp. 144~161.

3) A. R. H. Baker, 1975, *Historical Geogaphy and Geographical Change*, London: Macmillan Edu., p. 13. P. E. James (ed.), 1959, *op. cit.*, pp. 153~159.

4) H. C. Darby, 1953, "The relations of geography and history," in: G. Tylor(ed.) 1957, *Geography in the 20th Century*,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p. 645.

5) S. B. Cohen and Other, 1971, "A geographical model for political systems analysis," *Geographical Review*, vol. 6(1), pp. 12~15.

R. Muir and Other, 1981, *Politics, Geography, and Behavior*, London: Methuen, p. 16.

6) O. H. K. Spate, 1942,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capital cities," in: W. A. D. Jackson (ed.) 1964, *Politics and Geographic Relationship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p. 171.

任德淳, 1976, "서울의 首都類型 研究", 부산교육대학연구보고, 第12卷 1號, 부산교육대학, p. 68.

다.” 결속기능이란 수도가 領土內 대다수 ‘人民’ 들로 하여금 해당 국가에 소속하여 있는 ‘國民’ 임을 인식하게 하여 주고,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을 結束하게 하는 일, 마치 아치型 石造大門의 여러개 돌중에서 키이스톤(keystone)이 다수의 돌들로 하여금 흩어져 무너져 내리지 않게 力學的으로 求心的 作用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을 말한다.

연결기능이란 수도가 自國의 존속·발전을 위해서 外國으로부터 情報와 生氣(vitality)를 받아들이고, 타국과의 外交·連結도 유지하는 일을 말한다. 변경유지 기능이란 수도가 적절하게 中央政府의 政策·措置를 변경에 실행함으로써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遠心的 要因들을 제거하면서, 이곳의 安全·安定을 피하고, 나아가 國境衝突도 막는 일을 말한다.

위와 같은 4가지 기능은 수도 고유의 基盤機能(basic function, 또는 basic activity)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기능이 근본적으로 수도의 성장(인구, 外觀, 空間規模面)이나 발전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 서울의 기반기능을 고려해보면, 그저 서울을 간단하게 ‘韓國의 여러 大都市 중의 하나’로 간주·처리 하면서, 그의 都市機能, 그중에도 中心地 機能의 규모를 운위하여온 일은 再考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서울의 도시기능을 논의하고, 특히 그 기능의 규모를 검토하려면, 최소한도 이 서울을 수도가 아닌 도시들과 같은 思考線上에 놓는 일은 피하고, 또한 서울이 聯邦國의 수도나 先進化된 나라의 수도가 아니라 開發途上國의 ‘主導性이 아주 강한’ 首都라는 점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空間的 觀點에서는 수도를 구체적이고도 現實的인 ‘空間’에 기초를 둔, 또는 공간 위에 선 政治都市로 본다. 이렇게 보면 수도 연구자는 일차적으로 하필 왜 현재의 場所가 首都로 정해졌는가, 그리고 현 수도위치는 國家의 統治目標에 合致하는가에 주목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수도

의 공간규모는 수도의 機能成長과 어떠한 관계를 지닌 가운데 신장되어 왔는가, 그리고 현재의 공간규모는 어느정도나 되고 그 규모는 適切한 것인가, 또한 수도공간의 區域制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서지 아니하고 단지 수도 공간의 크기나 그 변동을 논의한다면 이는 별 의미가 없게 된다.

공간적 관점에 있어서 또하나의 注目할 만한 側面은 수도가, 특히 開發途上國의 경우에, 그 周圍에 政治的 重要性이 높은 地域을 形成시켜 가고 있고, 수도로부터의 距離가 멀어짐에 따라 (無限定은 아니지만) 위의 重要性이 점차 감소되는 지역들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⁷⁾ 즉 정치적 중요성에 있어서 首都를 核으로 하여 거리—감소(distance-decay) 關係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가령 서울(수도) 주위의 富川이나 安養의 정치적 중요성은 서울로부터 보다 더 먼 利川이나 烏山보다 높다는 점이다. 서울 周圍地域은 首都와 직접·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多數人口 및 經濟活動과, 수도의 영향을 쉽게 받음으로써 생기는 “首都性 政治意識”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 경제활동, 정치의식면에서 열세에 있는 보다 먼 지역들보다 政治的으로(특히 選舉面이나, 中央政治人들의 意識面에 있어서) 重要視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現象으로서 “首都 近接效果” 즉 수도에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그 거리가 어떤 地域의 정치적 중요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수도를 인식해 봄으로써 수도를 核으로 하여 짜여진 政治的 重要度の 分布패턴(혹은 地域的 構造)을 발견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3. 研究對象과 方法

(1) 네가지 觀點과 관련된 對象들

政治地理的 측면에서 首都를 연구하고자 할

7) O. Maull, 1956, *Politische Geographie*, Berlin: Safari, p. 106.

8) E. W. Soja, 1971, *The Political Organization of Space*, Resource Paper, No. 8,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p. 4 참조.

任德淳, 1983, “政治地理學的의 正體와 主要概念,” 忠北大新聞, 332號(1983. 6. 13.) 참조.

때, 研究對象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꽤 많다.

우선 歷史的 觀點과 關係해서 중요한 대상들만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서울의 首都起源 또는 首都被選
- ② 서울의 首都로서의 成長·發展過程

首都起源을 연구하고자 하면 高麗末期—朝鮮初期의 文書들을 통하여 당시의 國內外 政治情勢, 爲政者 및 關係官들의 수도에 대한 意圖, 여러 首都候補地의 地理的 性格, 수도 被選過程 등을 探索해서 分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首都로서의 성장·발전과정을 연구하려던 期間의 方法, 時間斷面的 方法, 通史的 方法과 같은 歷史的 方法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되, 關係資料는 首都初期—오늘날 順으로 수집·組織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시스템的 觀點과 關係해서 研究대상을 제시해보면

- ① 國內外 環境變化와 關係되어 일어난 首都 서울의 機能·構造·空間상의 變化 과정
- ② 위와 같이 일어난 機能—構造 變化和 空間 變화간의 關係 등이 있다.

首都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그들 變化를 追溯한, 그리고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國際的 및 國內的 環境(정치, 경제, 지리면의)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의 時代的 變化를 각종 文書를 통해 추적하여, 이 變化가 수도의 機能·構造·空間에 미친 影響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後者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機能—構造”와 “空間”은 둘다 함께 시스템인 首都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要素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外的 環境의 變化가 초래한 기능—구조의 變化가 수도의 既存 空間狀態에 어떻게 影響을 주어, 그 공간이 달라지게 하였는가를, 다시 말해서 首都 시스템內的 위 두 要素(기능—구조와 공간)간의 相互作用인 소위 위드인풋(withinput)를 분석하는 일을 통해서 살피면 좋다. 이 양 요소간의 關係를 찾는 일은 수도의 政治地理的 研究上 크게

가치있는 일이다.

機能的 觀點과 關係해서 보면, 아래와 같은 對象들을 찾아낼 수 있다.

- ① 首都 서울의 統御機能 程度의 變化
- ② 서울의 對外 連結機能의 成長過程
- ③ 서울의 邊境維持機能으로서의 朝鮮時代 韓中 國境貿易
- ④ 수도 所在 國家—國民의 象徵의 分布와 構造
- ⑤ 聯邦首都와 單一國(unitary state) 수도간의 統御機能의 차이

통치기능 程度의 變化는 한국의 歷代憲法에서 單一體制(unitary system)의 存在여부, 통치자의 權能程度, 地方自治여부, 기타 특수 조치여부등을 분석·검토하면 가능하다. 연결기능의 발전 과정은 가령 外務部의 機構擴大 과정이나, 한국의 外交關係 數를 특정 過去로부터 추적·분석하면 될 것이다. 물론 다른 指標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邊境維持機能으로서의 韓中 國境貿易”이라는 主題의 설정은 지금까지 歷史學에서 보아온 것과는 觀點이 다른 것이다. 이를 살피려면 당시 國境 충돌의 原因, 結果, 國境關係 회담내용등을 역시 文書를 통해 언어내어 분석할 수밖에 없다. 한중 國境지역에 설치했던 中江開市, 會寧開市, 鏡興開市 등은 정치지리학적으로 보면 邊境維持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首都 所在 國家—國民의 象徵의 분포는 이에 대한 理論·概念을 먼저 검토·음미한 후 現場 調査로써 알아낼 수 있다. 分布를 알아낸 후 全體的인 象徵構造를 밝히고,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國民結束機能을 수행하는가를 알아내면 좋을 것이다.⁹⁾

연방국과 단일국간에는 理論上 수도의 통치기능의 強度가 같을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兩 國家群간의 통치기능 強度가 얼마나 다른지를 演繹하여 보면 좋을 것이다.

空間的 觀點과 關係해서 研究대상을 찾아보면

9) 任德淳, 1982, “首都 서울의 結束機能,”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第24輯, 忠北大學校, pp. 181~189.

石成岳, 1973, 首都의 統合機能에 關係한 研究: 주로 政治地理學的 측면에서, 嶺南大 大學院碩士請求論文, pp. 58~62.

R. Muir, 1975, *op. cit.*, p. 33.

- ① 朝鮮政府가 漢陽을 首都로 삼은 地理的 理由
- ② 現 首都位置의 適切性
- ③ 首都空間 規模의 적절성
- ④ 수도공간 규모의 변화(수도기능과 관련하여)
- ⑤ 수도 서울의 行政區域(區 단위) 변천
- ⑥ 한국 歷代 首都의 移轉
- ⑦ 首都內 地域間 勢力差異
- ⑧ 수도를 中核으로 하여 짜여진 政治的 重要 度의 地域的 構造

한양을 首都로 삼은 지리적 理由는 首都選定 당시 位定자의 政治地理上의 견해를 찾아내어 이를 사이트—시츄에이션의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¹⁰⁾ 이렇게 하려면 당시의 關係문서들을 자료로 삼아야한다. 現 首都位置의 적절성 문제는, 研究가 효과적으로만 이루어지면 現實的 適用性도 아주 큰 것이 될 것이다. 이 적절성 판단은 현재 및 미래의 국가목표나 政策에 바탕을 두고 행해져야 좋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우선 韓國政府의 국가목표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에 비추어 보아 現 首都의 位置가 合當한지 아니한지를 가려야만 할 것으로 본다.

수도의 空間規模는 固定的일 수가 없다. 이의 變化를 특히 수도의 機能 伸장과 관련지어 찾아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¹¹⁾ 이 變化를 추적하려면 市域變更 모두를 順次的으로 조사해내고, 이 변경 前後의 형편, 그중에도 수도기능을 집중적으로 살펴 양자간의 因果關係나 相關關係를 찾아보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의 공간규모 變化가 지닌 올바른 意味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首都內 行政區域 변경은 人口增加나 市域擴大 등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상례이다. 區域의 성격과 數의 變化, 區域境界의 構造, 區域內 區廳 所在地 位置의 적절성등이 살펴볼 가치가 있는 대상들이다. 이 일에는 역시 關係문서의 분석과 현장조사· 관찰이 뒷받침돼야할 것이다.

한국의 歷代 수도, 다시 말해서 韓半島 거의

全體에 걸쳐 존재한 國家였던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首都 移轉을 고찰해보면, 어떤 요인들이 수도이전에 작용하였는가를 알 수 있고, 결합하여 位定자들의 首都—邊境 關係에 관한 意識도 알 아낼 수 있다. 이 고찰을 함에 있어서는 국토의 中心—周邊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수도의 中央的 位置 指向如否를 가려내고, 여기에다 歷史的 知識을 보태면 좋을 것이다. 多數의 정보와 지식은 高麗史, 朝鮮王朝 實錄등에서 얻을 수 있다.

수도를 中核으로 해서 짜여진 政治적 重要度의 分布패턴 내지 地域的 構造는 수도—수도 인접지역—수도 近距離地域 順으로 각 해당지역의 市郡別 政治意識을 조사· 分布化하거나, 이것보다 는 조금 못하지만 財政自立度를 알아내어 分布化 해봄으로써 발견이 가능하고, 분석도 될수 있는 것이다.

(2) 기타 對象들

이상의 諸 觀點과 직접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其他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은 아래와 같다.

- ① 서울의 首都類型
- ② 한국에 있어서 政府體制(governmental system)와 수도類型간의 關係
- ③ 한국 수도와 他國 수도간의 要素(文化, 정부체제, 산업기반등) 別 差異
- ④ 한국 道都(道廳所在地)의 立地指向
- ⑤ 한국에 있어서 道都의 移轉
- ⑥ 各道內 首位都市의 宗主性

서울의 首都類型 연구에서는 關係 諸概念을 검토한 후, 이를 근거로 서울이 지닌 首都性格을 모두 파악하여 이를 類型化하면 좋을 것이다.¹²⁾ 여기에는 憲法, 국가정책, 象徴, 통계등이 가능한 많이 동원되어야 한다. 道都立地 分析은 각도의 道都移轉과 그의 現 位置를 찾고 밝혀서, 이를 歸納함으로써 가능하다. 道都移轉 연구는 그 自體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로써 밝혀진 立地條件들은 新 道都選定에 정책적 차원에서 크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宗主性

10) D. S. Rugg, 1972, *Spatial Foundations of Urbanism*, Dubuque: W.M. C. Brown, p. 85 참조.

11) N. J. G. Pounds, 1963,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McGraw-Hill, pp. 186~187.

12) 任德淳, 1976, *op. cit.*, pp. 66~73.

분석은 各道의 경우에는 自道の 발전·生氣를 북돋우는 데 기여할 수 있는 道都의 리더십 所有與否를 알아내는 데 유용하다. 아울러 道都 유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道에 있어서는 道都를 정하고자 할 때 어떤 原理, 가령 幾何學의 中心地 原理, 中立地 原理, 首位都市 原理, 歷史的 中心地 原理중 어느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줄 것이다.

4. 結 論

이상에서 本稿는 韓國首都 研究에 대한 方法論上의 論議를 觀點과 對象을 중심으로 展開해 보았다. 그간에 筆者가 주로 政治地理學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보고, 관계되는 論著들을 검토해보고, 연구·고찰도 해본 것들에 근거해서 필자의 構想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제 이를 要約·整理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首都는 一國 最高的 政治的 權威가 소재하는 都市로서, 그것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강하다. 따라서 수도를 정치지리학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일은 크게 가치있는 일이다. 韓國首都 연구상의 觀點, 對象, 方法은 연구 분야나 연구자의 哲學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그 數에 있어서도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

한국의 수도를 연구·고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소위 '首都觀點'에는, 오늘의 수도를 과거—현재—미래의 連續線上에서 바라보는 歷史的 觀點이 있고, 수도를 諸 環境의 변화에 適應하는 機能體, 즉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시스템'적 觀點이 있으며, 수도를 形態體 以上の 어떤 固有 機能體로 보려는 機能的 觀點도 있다. 그리고 또한 수도는 虛空에 떠있는 機能체가 아니라 어

떤 具體的 空間에 자리잡고 있고, 또한 그의 영향은 首都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짧은 수도 인접 지역에 가장 크게 미친다는 생각에서 나온 空間的 觀點도 있을 수 있다.

이상의 觀點 테두리 안에서, 또는 이들과 관련하여 추출한 연구대상들은 다음과 같다. 즉, 서울의 首都起源 또는 首都被選, 이의 成長·發展過程, 國內外 環境의 변화와 관련된 首都變化 서울의 機能—構造變化와 空間變化간의 관계, 수도의 統御機能 程度變化 및 連結機能의 伸張過程, 수도의 邊境維持機能으로서의 韓中國境貿易, 首都所在 國家—國民의 象徴의 分布와 構造, 聯邦國과 單一國간 首都 統治機能의 差異, 漢陽이 수도로 정해진 地理的 理由, 現 首都의 位置適切性, 수도 空間規模의 적절성 및 변동, 수도내 區 行政區域의 변천, 한국 역대수도의 移轉, 首都內 地域間 勢力差異, 수도를 중핵으로 한 政治的 重要度の 分布패턴등이다.

이외에 서울의 首都類型, 政府體制—首都類型 관계, 한국 道都의 立地指向, 道都移轉, 各道內 道都 또는 首位都市의 宗主性與否 등도 연구 대상이 된다.

이상의 대상들에 쓰일 수 있는 方法과 資料는 具體的 대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비교적 자주 쓰일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즉, 사용자로나 指標와 관련하여 볼 때 文書分析과 機構的 方法이 있고, 자료를 여하히 組織하는가와 관련하여 볼 때 時間斷面的 方法이 있으며, 變化를 바라보는 觀點과 관련하여 말할 때 시스템적 方法이 있다. 그리고 살펴진 各 特殊들을 근거로 하여 一般化를 수행하는 歸納的 方法이 있다. 이외에 정치지리학에서 아직은 部分的이거나 補助的인 地位에 있는 計量的 方法과 現地調査도 있다. 指標의 計量化는 정치지리학의 새로운 地平을 여는 데 한 몫을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A Methodological Discussion on the Study of the Korean Capital

Duck-Soon Im*

This work is a methodological discussion on the study of the Korean capital in viewpoint of political geography. Viewpoints, objects, and methods in study of the capital may vary according to philosophies and to number of the researchers.

There are four viewpoints which may be used in studying Korean capital: historical, systems, functional, and spatial ones. Historical viewpoint emphasizes the capital's character of past-present-future continuum, systems viewpoint focuses on the capital's adaptation to external environments, functional viewpoint deals the functions or activities of the capital, and spatial viewpoint deals the concrete space as a base of the city as a system.

Significant objects of the study derived from the above viewpoints are as follows:

Seoul's origin of capital and its developmental process, choice of Seoul as a Korean capital and its geographical reasons; relationships between both changes of Seoul's function-structure and its space, development or change of capitals basic functions: head, keystone, link, and frontier-organizer fun-

ctions, distribution and structure of national iconography in Seoul, and difference in capital's head function between federal states and unitary ones; locational and space-size validities of Seoul as a capital, historical change of space-size of Seoul, and historical change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the city; and capital transfers of historical kingdoms of Korea, gap of political strength among areas in Seoul, and core(capital)-periphery of political significance in Korea.

Other important objects are capital's type of Seoul, governmental system-capital type relationship, capital's locational orientation in Korea, transfers of provincial capitals, primacies of capitals or primate cities of the provinces.

Main methods or approaches which are worth using in the study of the capital are documentary, institutional, cross-sectional, systems, and inductive ones. Quantitative approach is not universally used yet. This approach, however, has some possibility to open new horizons in political geography.

Journal of Geography, 10, 1983. 12, pp.143~149.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